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Chronology of Baekje's Gilt-bronze Shoes Compiled from the Perspective of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Patterns

이 문 형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Ⅰ. 머리말

Ⅱ. 금동신발의 자료검토

Ⅲ.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

1. 결구방법
2. 조금기법과 문양

Ⅳ.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

1. 선행 연구자의 편년
2.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에 따른 편년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재연구원의 2016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음.

국문요약

본고는 백제 금동신발의 자료를 검토하여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을 제시하였다.

조금기법이란 단조로운 금속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으로 백제 금동신발에는 線彫기법(점선조 · 축조)과 魚子文기법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조금기법의 발달은 금동신발의 문양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단순한 투조판에서 점차 육각형문의 복잡 다양한 투조판으로 변화한다. 또한 시문된 문양에 있어 일정한 변화 패턴의 연속성이 관찰된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은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를 바탕으로 크게 한성시기와 웅진시기로 구분된다.

한성시기의 백제 금동신발은 '凸'자문 혹은 능형문의 투조판으로 단순하게 제작되다가 5세기 2/4분기에 이르러 조금기법이 접목되어 용문 혹은 화염문 등으로 변화한다. 이같은 조금기법은 더욱 발전하여 5세기 3/4분기로 판단되는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봉덕리 금동신발은 육각형문으로 구획된 투조판 내부에 용을 포함한 봉황 · 인면조신 등의 각종 상서로운 동물을 새로운 어자문기법 등으로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입체감있게 시문하였다.

웅진시기로 들어서면 금동신발은 조금기법상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된다. 즉 한성시기에 사용되던 조금기법 중 단순한 점타조기법만을 사용하여 문양을 시문하며, 문양 또한 단조롭게 변모한다. 이는 금동신발은 물론 공반 출토되는 금동관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금속기술의 갑작스런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구려의 한성 함락(475년)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공인 집단의 와해 혹은 기술의 단절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후 백제의 금속공예는 대체로 6세기 무령왕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백제, 금동신발, 조금기법, 선조기법(점선조 · 축조), 어자문기법, 문양, 한성시기, 웅진시기

Ⅰ. 머리말

역사적으로 신발은 개인의 부를 표현해 왔으며, 특정 형태의 신발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복천박물관 2010:8). 특히 신발 중에서도 금동을 재료로 하여 화려하게 장식한 금동신발은 주인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위세품적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식적 측면을 강조하여 제작된 기물에는 당시 부장문화의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제작상의 기술수준은 피장자의 지위는 물론이고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權香阿 2000:109). 따라서 이러한 위세품의 제작에는 당대 최고의 금속기술이 접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제의 경우 1971년 무령왕릉을 시작으로 최근 나주 정촌에 이르기까지 백제 故地 전역에서 금동신발이 출토되고 있으며, 출처 역시 왕릉인 전축분을 비롯하여 석축묘(석실 · 석곽), 토광묘, 옹관묘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분묘에서 발견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당시 백제인의 사상과 이를 문양으로 표현하기 위한 금속기술이 금동신발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금속공예품의 제작기법 중 하나인 조금기법이란 주조 또는 단조기법에 의하여 성형된 금속공예품의 외면을 장식하거나 원하는 문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이난영 2000:50). 다시말해 금속표면에 형태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정으로 깎거나 새기고 돋우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다(李知炫 외 2011). 따라서 금동신발에 새겨진 문양과 장식을 통해 백제 금속공예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들 금동신발에서 나타나는 조금기법을 통해서도 당시 백제인의 수준높은 금속기술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자료를 검토하여 결구방법과 문양시문에 나타나는 금속기법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를 통해 백제 금동신발의 개략적인 연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금동신발의 자료검토[1]

백제시대의 금동신발은 최근의 보고된 나주 정촌유적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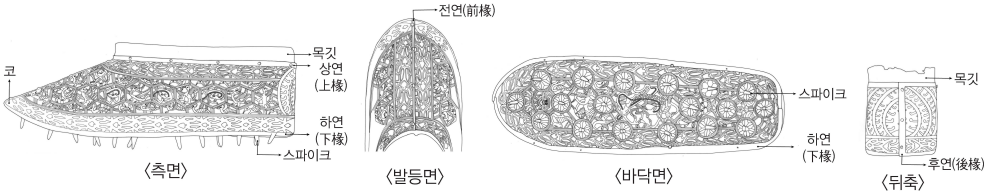
13개소 유적에서 총 20여점이 출토되었다.[2]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출토된 금동신발 가운데 아래 [표 1]과 같이 크기와 문양 등 세부적인 제원이 파악 가능한 것을 분석 대상으로 정리하였다.[3]

[표 1] 백제 금동신발 출토 자료

유적 및 유구명	유구성격	길이(잔존)		결구방법		못 수량		스파이크	
				발등	뒤축	발등	뒤축	형태	수량
공주 수촌리 Ⅱ-1호	토광묘	좌	?	우-좌	좌-우	4	3	사각추	10
		우	(29.5)						
공주 수촌리 Ⅱ-3호	석곽묘	좌	?	우-우	우-우	4	3	사각추	?
		우	(31.6)						
공주 수촌리 Ⅱ-4호	석실묘	좌	(28.7)	우-우	우-우	3	?	사각추	10
		우	(29.7)						
익산 입점리 86-1호	석실묘	좌	30.2	좌-우	좌-우	3	2	사각추	10
		우		우-좌	우-좌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묘	좌	32.7	좌-우	우-좌	4	3	원추형	18
		우	32.4						
나주 신촌리 9호 을관	옹관묘	좌	?	좌-우	좌-우	3	3	사각추	9
		우	29.7	우-좌	우-좌				
고흥 길두리 안동	석곽묘	좌	30.6	좌-우	우-좌	7(실)	3(실)	사각추	11
		우							
공주 무령왕릉(왕)	전축분	좌	38.0	좌-우	좌-우	5	4	사각추	9
		우	(36.4)	우-좌	우-좌				
공주 무령왕릉(왕비)		좌	36.4	좌-우	?	5	3	원추	9
		우	?	우-좌	?				

[표 1]을 통해 볼 때 금동신발이 출토된 유구의 가장 큰 특징은 왕릉인 전축분을 포함하여 지방의 전통적인 옹관묘에 이르기까지 출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는 백제 중앙과 지방과의 역학 관계에 있어서 정치와 문화(전통)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 신발에 대한 세부명칭은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이문형 · 유수화 2015:317).



2) 이밖에도 서울역사박물관소장품과 공주 송산리 출토로 전하는 이화여대소장품이 있다.

3) 최근에 보고된 화성 요리(목곽묘)와 나주 정촌(석실묘)의 출토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신발의 크기는 무령왕릉(왕 · 왕비) 출토품을 제외하고는 대략 30㎝ 내외임을 알 수 있다. 발등과 뒤축의 결구방법을 보면 신발 한 켤레 두 짝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것(공주 수촌리, 고창 봉덕리, 고흥 길두리)과 두 짝이 각각 다르게 제작된 것(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공주 무령왕릉)으로 구분된다. 이를 결구하는 못의 수는 대략 발등 전연에는 3~5개, 뒤축 후연에는 2~4개 정도인데, 예외적으로 길두리 안동고분의 경우 못이 아닌 금속실을 사용하여 결구한 것이 특징이다. 길두리에서 출토된 신발의 금속실 결구 부분은 발등부에서 7곳, 뒤축에서 3곳이 확인되었다. 바닥면의 스파이크는 대개 사각추 형태이며 그 개수는 평균 9개에서 11개 내외지만 고창 봉덕리의 경우 이보다 2배에 가까운 18개를 배치한 것도 있다.[4]

한편 금동신발이 편으로 보고된 유적으로는 원주 법천리(1호 · 4호), 연기 나성리, 공주 수촌리(Ⅱ-8호), 서산 부장리(6-6호 · 8-1호), 고창 봉덕리 1호분(5호), 나주 복암리 3호(96석실) 등이 있으며 이례적으로 가야고분인 남원 두락리 · 유곡리유적의 석곽묘(32호분 주석곽)에서 금동신발이 출토된 사례도 있다.

Ⅲ. 제작기법에 대한 검토

1. 결구방법

백제 금동신발은 바닥판과 양 측판을 포함한 3매의 금속판으로 제작된다. 즉 좌 · 우 양 측판의 하연을 접어 바닥판을 결구한 후 발등과 뒤축에서 금속실 혹은 리벳으로 결합하여 제작된다. 따라서 금동신발의 코가 뾰족하게 각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그림 1).[5] 그러나 최근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경우 완

4) 최근에 보고된 나주 정촌 출토 금동신발에는 모두 24개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다.

5) 신라의 금동신발은 3매로 금동판으로 제작하는 점은 백제와 동일하나, 신라의 금동신발은 앞판과 뒤판, 바닥판으로 제작하여 신발의 측면에서 결구하여 신발의 코가 둥근 곡선을 이룬다.

황남대총(남분)	금관총	경주 인왕동
		

신라 금동신발 예(복천박물관 2010)

성된 금동신발의 상연에 추가적으로 금속판(목깃)을 덧대어 총 4매로 제작되었다(이문형 2014b:141~143, 이문형 · 유수화 2015:317~318).[6]



[그림 1] 백제 금동신발 예

따라서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은 금속판 3매를 사용하여 제작한 경우와 목깃에 1매의 금속판을 부가하여 총 4매로 제작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깃의 기능은 금속판이 가진 탄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식이 없는 평판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실용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이문형 · 유수화 2015:310). 현재까지 신라지역에서는 목깃이 있는 금동신발이 출토된 예가 없으며 이는 제작 방식의 차이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목깃은 백제 금동신발의 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은 바닥판과 양 측판을 결구하는 방법, 즉 못(釘) 혹은 금동실(금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Ⅰ형식은 양 측판과 바닥판, 발등과 뒤축 모두 금속실로 결합한 것으로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이 대표적이다. 길두리 금동신발은 같은 선상에 2개의 구멍을 뚫은 것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금동실을 사용하여 결합하였다. 이와 같이 금동실을 사용한 예는 원주 법천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편에서도 확인되는데(國立中央博物館 2000:44) 사용된 금동실이 꺾쇠 형태인 'ㄷ'자형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제작한 금동실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Ⅱ형식은 양 측판에 바닥판을 별도의 결속구(못이나 금속실)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한 이후에 발등과 뒤축에서만 못으로 결합하여 제작한 것이다. 공주 수촌리 Ⅱ-1호 금동신발을 포함한 수촌리 Ⅱ-3 · 4호 금동신발이 여기에 해당된다.[7] 즉 양 측판

6) 서산 부장리 8-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일부 편에서도 목깃과 같은 片이 관찰되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나주 정촌유적 출토 금동신발 역시 목깃을 부착하여 4매의 금속판을 사용하였다. 다만 봉덕리 출토품과는 달리 발등의 전연에 용머리 장식을 부착하였다.

7) 다만 이현상은 그의 논고에서 3호와 4호에서 바닥판과 측판을 고정하기 위한 리벳은 관찰되지 않으나, 금동실로 연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이현상 2011:300).

의 하연을 'L'자형으로 구부려 바닥판을 고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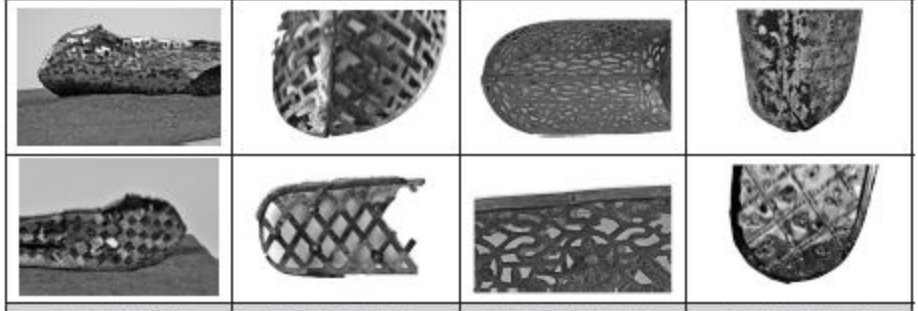
Ⅲ형식은 발등면과 뒤축은 물론 바닥판과 측판 모두 못을 사용하여 결합한 것으로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금동신발을 들 수 있다. 바닥판과 측판의 하연에는 구멍(우측:4곳, 좌측:3곳) 중에 1곳에만 대칭되게 못으로 고정하였다(이문형 · 유수화 2015:317).[8]

마지막으로 Ⅳ형식은 발등과 뒤축은 못을 사용하고 바닥판과 측판을 실로 결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익산 입점리, 나주 신촌리 · 복암리 출토품이 해당되며 또한 무령왕릉(왕 · 왕비)의 신발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른 백제 금동신발의 각 형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결구방법에 따른 백제 금동신발의 형식 분류

형식	방 법	출토 예
Ⅰ형식	양 측판과 바닥판, 발등과 뒤축 모두 금속실로 결합한 것	고흥 길두리 안동
Ⅱ형식	양 측판에 바닥판을 끼우고 발등과 뒤축에만 못으로 결합한 것	공주 수촌리 Ⅱ-1호 · 3호 · 4호
Ⅲ형식	양 측판과 바닥판, 발등, 뒤축 모두 못으로 결합한 것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Ⅳ형식	양 측판과 바닥판은 금속실로, 발등과 뒤축은 못으로 결합한 것	무령왕릉(왕 · 왕비), 익산 입점리 86-1호, 나주 신촌리 9호(을관)



[그림 2] 각 형식별 금동신발 예

2. 조금기법과 문양

금속표면을 장식하는 모든 기법을 조금기법이라 한다. 조금기법의 발달은 다양한 정의 발달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문양을 표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편임을 감안할

8) 그 외 다른 구멍에서는 못을 박았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

때 조금기술과 문양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이장에서는 조금기술과 문양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조금기법[9]

금속공예품의 표면장식에 조금기법으로 시문하면 그 외형은 다양화되는데 이러한 조금기법에는 선조 · 어자문[10] · 상감기법 등이 있으며, 백제 금동신발에서는 선조기법과 어자문기법 등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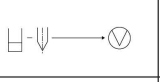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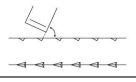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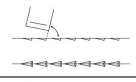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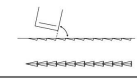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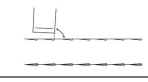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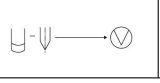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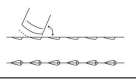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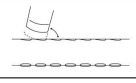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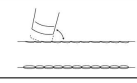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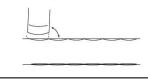
선조기법은 점선으로 시문하되 선이 이어지는 모양과 사용하는 공구의 형태에 따라 點線彫, 蹴彫, 毛彫技法[11]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점선조 : 끝이 뾰족한 '운풍정'으로 점을 연속적으로 찍어 선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압출 혹은 타출기법으로 불린다. 초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문 방법으로 눌러 시문하는 방법과 裏面에서 타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點이 연속적으로 표현되어 점열문 혹은 열점문으로 알려져 있다.

◎ 축조 : 끝이 약간 편평한 '공군정'으로 직각에 가까울 만큼 비스듬히 세워 가볍게 각을 세우면서 차듯이 두드린다 하여 붙여진 용어이다. 즉 양면으로 경사지게 깎은 '一'자형의 정을 일정한 방향으로 연속하여 두들겨서 금속정의 흔적이 표면에 남게 되는 기법으로 이것은 마치 연속된 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쐐기형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여러 점들의 연결선이다.

축조기법은 단조나 주조에 비해 섬세하고 정밀한 전문작업으로 정의 先端 모양이나 각도, 타격 간격, 타격 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표 3).

[표 3] 축조기법시 정의 先端 모양 및 각도와 간격에 따른 시문 양상 (權香阿 2000:118 그림 3 · 120 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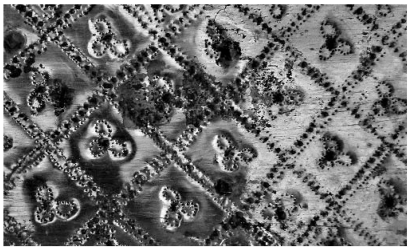
	선단모양	釘의 각도			
		60~65 °	70~75 °		85 °
三角形					
直線彫					

9) 조금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이난영(2000)와 權香阿(2000)의 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0) 일부 학자는 어자문정을 포괄하여 문양정으로 시문하는 모든 세공기법을 '인각기법'으로 부르기도 한다(이귀영 2010:4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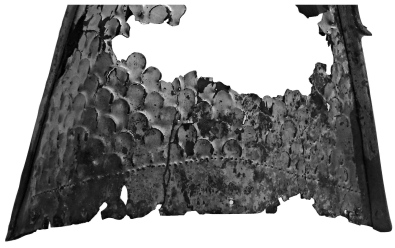
11) 모조기법은 일반적으로 금속을 미세하게 파내는 기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 가운데 모조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타격 사이를 규칙적으로 조절하여 축조를 연속되게 시문하는 것은 수려한 선조효과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특수 공인에 의해 제작 가능성이 높고 제작집단 역시 별도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權香阿 2000:110).

점선조(익산 입점리 86-1호)	축조(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그림 3] 선조기법의 예

어자문기법은 강철제의 어자문용 끌을 사용하여 금속표면에 위에서 아래로 두드리면 작은 원문이 찍히는데 마치 魚卵처럼 보인다 하여 魚子文 혹은 魚鱗文으로 부르고 있다. 이 어자문끌(魚子文鑿)을 우리나라에서는 '누깔정' 또는 '방울정'으로 불리우고 있다(이난영 1991:189).[12] 어자문이란 용어 이외에도 환문, 연주문, 원권문, 원문, 타권문 등으로 불리워 왔다.[1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으로 쓰인 간단한 원문(目)부터 복잡하게 바탕에 地文을 메워 장식한 문양까지 모두 어자문으로 불리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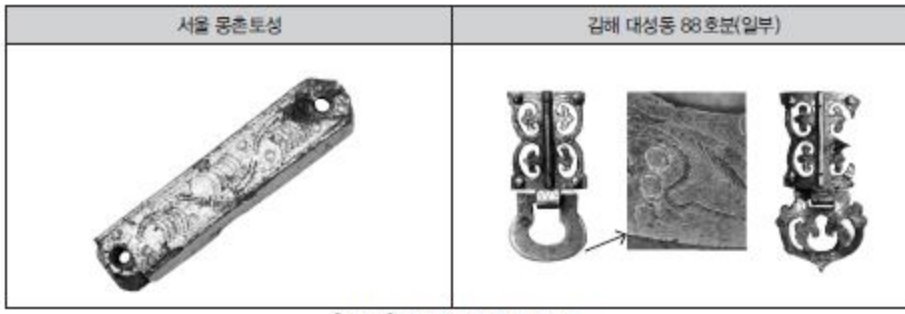
익산 입점리 86-1호 금동관모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외호)
	

[그림 4] 어자문(어린문)기법의 예

12) 어자문끌이란 뾰족한 송곳의 끝을 약간 잘라내고 그 중간을 凹面으로 만든 송곳, 즉 둥근 송곳 끝의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형태의 것을 말한다.

13) 현재 우리학계에서는 일인학자 中野政樹이 정의한 어자문의 성격이 통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단독으로 쓰여 눈(目) 같은 것을 나타낸 것 ②連珠文, 珠文帶를 나타낸 것 ③동물의 머리나 몸체의 班文으로 나타낸 것 ④凸線上에 강하게 찍어 小珠列文을 나타낸 것 ⑤바탕에 찍어 地文을 장식한 것(中野政樹 1983, 이난영 1991:187~188)

어자문의 가장 기본적인 圓文은 4세기경 백제와 가야지역에서 수입된 중국제 유물에서 볼 수 있다. 어자문이 시문된 유물로는 서울 몽촌토성, 김해 대성동 88호분에서 출토된 晉式帶金具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5] 중국제 유물의 어자문기법

특히 대성동 88호분에서는 帶端金具 1점과 銙 3점이 출토되었는데 대단금구에는 투조된 쌍용문과 함께 점선조 · 축조 · 어자문기법의 문양이 시문되었고 銙 역시 축조 및 어자문기법의 문양이 확인된다(대성동고분박물관 2013:74~75). 그러나 어자문으로 표현된 원문의 경우 풍납토성과 대성동고분 출토품 모두 중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완연한 원문의 어자정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조금기법과 앞서 살펴 본 결구방법을 금동신발의 각 형식에 대입하여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백제 금동신발의 결구방법과 조금기법과의 상관관계

유적 및 유구명	판금·투조	조금기법						결구방법
		점선조		축조		어자문		
		측판	바닥판	측판	바닥판	측판	바닥판	
고흥 길두리 안동	○							Ⅰ형식
공주 수촌리 Ⅱ-1호	○							Ⅱ형식
공주 수촌리 Ⅱ-3호	○	○	○	○	○			
공주 수촌리 Ⅱ-4호	○	○	○	○	○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 (육각문)			○	○	○	○	Ⅲ형식
익산 입점리 86-1호		○	○					Ⅳ형식
나주 신촌리 9호 을관		○	○					
공주 무령왕릉(왕)	○ (육각문)	○	○					
공주 무령왕릉(왕비)	○ (육각문)	○	○					

[표 4]에서 보여지듯 백제 금동신발은 판금의 형태에 따라 크게 투조판을 사용한 것과 평판을 사용한 것으로 구분된다. 다만 무령왕릉의 경우 투조된 판 내부에 은판 혹은 금동판을 덧댄 특별한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무령왕 신발의 경우 투조판 역시 일부만을 투조하고 있어 투조판과 평판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한편 측면과 바닥에 영락을 달아 장식성을 배가시켰는데, 나주 복암리 3호분 96호석실에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01b:179~180) 출토된 금동신발에서도 확인된다.

조금기법으로 살펴보면 단순하게 투조된 금동판을 결합하여 제작한 것(공주 수촌리 Ⅱ-1호 · 길두리 안동고분), 점선조 및 축조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공주 수촌리 Ⅱ-3 · 4호), 축조 및 어자문기법으로 제작한 것(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평판 혹은 투조된 판금에 점선조기법으로 제작한 것(익산 입점리 · 나주 신촌리 · 무령왕릉 왕 · 왕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자문기법은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품에서 측판과 바닥판의 일부에 동물의 눈(目)이나 용의 비늘을 표현하는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이문형 · 유수화 2015:320). 이는 현재까지 백제 금동신발에서 확인되는 유일한 예이다.

2) 문양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금기술에 있어 세부기법의 발전이 문양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결국 이같은 조금기술의 발달은 강철제 釘의 발달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강철제 끌이 출현함으로서 비로소 철이 청동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표현한다(이난영 2000:51). 이러한 정(鏨)의 발달은 보다 복잡하거나 정교한 문양의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래 [표 5]는 백제 금동신발의 문양과 조금기법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문양과의 상관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투조판 자체의 변화이다. 즉 초기에는 '凸'자문 혹은 능형문으로 단순하게 투조되다가 점차 거치문과 화염문 · 용문 등 다양하면서도 복잡해지는 경향을 거쳐 봉황문 · 인동문 등으로 변화한다. 또한 세부적인 문양 표현에 있어 일정한 패턴이 관찰되는데 점선조기법은 문양대의 구획선이나 경계선 등의 보조문양으로, 주문양은 보다 세밀하게 표현이 가능한 축조기법이 적용된다. 나아가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서는 보조문양으로 축조기법이, 주문양에는 어자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끌)을 사용하여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입체감있게 표현된다. 특히 금동신발에 시문된 문양은 일정한 변화 패턴의 연속성이 확인된다. 만약 이러한

패턴의 주기가 시간성을 내포한 것이라면 이는 금동신발의 제작에 있어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집단 혹은 동일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Ⅳ형식의 금동신발의 문양과 기법에서도 관찰된다. 즉 능형문의 연속성과 통일된 꽃문양(잎 개수 변화), 또한 제작기법상에서 동일한 점선조기법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표 5] 백제 금동신발의 문양과 조금기법의 상관관계

유구명	주문양		보조문양		조금기법		판금:투조
	측판	바닥판	측판	바닥판	측판	바닥판	
고흥 길두리 안동	'凸'자문	능형문					○
공주 수촌리 Ⅱ-1호	'凸'자문	능형문					○
공주 수촌리 Ⅱ-3호	거치문 '凸'자문 화염문	거치문 용문 연화문	점열문	점열문	점선조 축조	점선조 축조	○
공주 수촌리 Ⅱ-4호	거치문 용문	용문	선문 점열문	점열문 선문	점선조 축조	점선조 축조	○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화염문 용문 봉황문 인면조신	화염문 용문 도철문 역사상 쌍조문 花文	점선문	점선문	축조 어자문	축조 어자문	○
익산 입점리 86-1호	능형문 花文	능형문 花文	점열문	점열문	점선조	점선조	×
나주 신촌리 9호 을관	능형문 원점문	능형문 花文	점열문	점열문	점선조	점선조	×
무령왕릉(왕)	花文	花文	점열문		점선조		투조+평판
무령왕릉(왕비)	인동문 봉황문	인동문 복합문	점열문		점선조		투조+평판

Ⅳ.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

1. 선행 연구자의 편년

그동안 백제 금동신발에 대한 연구는 기법(周炅美 1998, 權香阿 2000, 이귀영 2010), 제작(이현상 2011), 문양(이송란 2012), 위세품으로서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

계(진소영 2008, 이한상 2009 · 2010 · 2011, 이훈 2010)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이문형 2014b:142). 이상과 같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개략적인 시기와 시기적인 변화상의 흐름은 대체로 파악되고 있다.

백제 금동신발에 대한 편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령왕릉 이외에는 절대연대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동신발이 출토된 고분 구조와 함께 공반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선행되어 왔다. 먼저 무령왕릉을 제외한 금동신발이 출토된 고분의 구조와 공반된 중요유물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백제 금동신발 출토 고분의 주요 공반유물

유적 및 유구	구조	주요 유물
고흥 길두리 안동	석곽묘(수혈식)	금동관, 금동이식, 동경, 환두도, 투구, 갑옷 등
공주 수촌리 Ⅱ-1호	토광묘(목곽)	금동관, 금제이식, 환두대도, 금동과대, 중국제 청자 등
공주 수촌리 Ⅱ-3호	석곽묘(횡구식)[14]	환두대도, 등자(호등), 재갈, 철모 등
공주 수촌리 Ⅱ-4호	석실묘(횡혈식)	금동관, 금제이식, 환두대도, 금동과대, 중국제 청자 등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묘(수혈식)	죽엽형장식, 금제이식, 화살통, 동제탁잔, 중국제 청자 등
익산 입점리 86-1호	석실묘(횡혈식)	금동관, 금제이식, 금제수식, 중국제 청자 등
나주 신촌리 9호 을관	분구묘(옹관)	금동관, 이식, 환두대도, 환두도자 등

[표 6]을 통해 현재 금동신발이 출토된 고분의 유형은 토광묘, 석축묘(석곽 · 석실), 분구묘(옹관) 등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고분의 구조변화를 통한 편년 연구는 공주 수촌리유적에서 다양한 고분 유형에서 금동신발이 출토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보고자는 수촌리고분이 토광묘-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곽묘-횡혈식석실묘 순으로 발전하며, 이러한 묘제의 변화과정에서 금동신발의 제작기법이나 문양 등도 함께 변화 ·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훈 2010:43~46).

일반적으로 금동신발은 금동관모나 금제이식, 환두대도, 중국제 청자 등과 같이 위세품 성격의 유물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이들 공반유물과의 교차편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제 자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집적되면서 이를 통해 중국의 紀年銘이 확실한 고분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연대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제 자기의 수입-사용-부장시기 등의 전세시기에 대한 연구자간의 이견은 항상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전세에 대한

14) Ⅱ-3호 석곽묘의 경우 남벽의 중앙부에 출입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일부 연구자는 횡혈식석실묘로 보기도 한다.

개념검토와 이에 대한 부정론을 제기하면서(土田純子 2014:27~40) 매장유적에서 출토된 중국제 자기는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기종임을 지적하고 전세 가능성보다는 당사자의 무덤에 부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成正鏞 2010:22, 임영진 2012:25~26).

이와같은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연구자의 연대와[15] 필자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표 7] 백제 금동신발 출토 고분의 연대관

유적 및 유구	성정용 (2010)	임영진 (2012)	土田純子 (2014)	이한상 (2009)	이훈 (2010)	필자안
고흥 길두리 안동		5세기 초		5세기 2/4	5세기 2/4~3/4	5세기 1/4 ~2/4
공주 수촌리 Ⅱ-1호	5세기초	4세기 중~후엽	4세기 4/4(말) ~5세기 1/4	5세기 1/4	4세기 4/4	5세기1/4
공주 수촌리 Ⅱ-3호	5세기 1/4			5세기 2/4	5세기 1/4	5세기 2/4
공주 수촌리 Ⅱ-4호	5세기 1/4~2/4	4세기 말	5세기 2/4	5세기 2/4	5세기 2/4	5세기 2/4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5세기 중엽			5세기 2/4~3/4	5세기 2/4 ~3/4
익산 입점리 86-1호	5세기 3/4	5세기 중엽초	5세기 3/4 ~4/4	5세기 3/4	5세기 2/4~3/4	5세기 4/4 ~6세기 1/4
나주 신촌리 9호 을관				5세기 4/4	5세기 3/4~4/4	5세기 4/4 ~6세기 1/4

현재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공주 수촌리 Ⅱ-1호 토광묘 출토품을 들고 있다.[16] 보고자는 세부적인 연대에 있어 동반 출토된 중국제 청자를 5세기 1/4분기로 인정하면서도 고분의 유형이 토광묘라는 점을 들어 4세기 4/4분기까지 올려보고 있다(李勳 2010:98~99). 이에 반해 중국제 청자가 백제 왕실에 입수되고 다시 무덤에 부장되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하여 장신구 사여체제가 성립되는 5세기를 전후한 시점으로 보는 견해(이한상 2010:191), 최근에는 수촌리 Ⅱ-1호 토광목곽묘가 4호 석실묘에 선행하는 점과 흑유계수호(4호)의 연대를 감안하여 4세기 중 · 후엽경으로 올려보는 견해도 제

15) 〔표 7〕은 최근 직간접적으로 대상유적의 연대를 제시한 연구자로 성정용 · 임영진 · 土田純子는 중국제 자기, 이한상은 장신구(위세품), 이훈은 고분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연대를 추정하였다.

16) 최근 화성 향남지구 요리(목관묘)에서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세부적인 성격은 보고서 미간으로 알 수 없으나, 금동관모는 합천 옥전 23호분 출토품과 유사하고 금동신발은 투조판을 凸자문으로 확인되었다(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4).

기된 바 있다(임영진 2012:23). 또한 중국도자기와 백제토기와의 공반관계를 검토하면서 중국의 重慶市 忠縣 大墳壩 2호분과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4세기 4/4분기(말) · 5세기 1/4분기로 추정하고 있다(土田純子 2014:55~56). 필자는 수촌리 Ⅱ-1호 토광묘의 연대는 5세기 1/4분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수촌리 Ⅱ-1호 토광묘와 같은 유형의 토광묘는 청주 신봉동유적에서 조사된 예(90B-1호 · 92-80호 · 83호 · 108호 · 109호 등)가 있으며, 그 시기는 고분이 분포하는 위치와 출토유물을 토대로 5세기 전반에서 중엽으로 편년되고 있다(忠北大學校博物館 1990 · 1995:287~291). 또한 수촌리 Ⅱ-1호 토광묘에서는 모두 7점의 장경호가 출토되었다. 장경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목이 길어지고 외반도가 벌어지며, 경부에 돌대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순발 2006:170). 수촌리 Ⅱ-1호 토광묘 출토 장경호는 이른 시기의 것과 후행하는 것이 함께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촌리 Ⅱ-1호 토광묘의 연대는 5세기 1/4분기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조사 보고된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의 경우 南京 司家山 6호 謝琉墓 출토 반구호와의 유사성을 들어 5세기 초반으로 추정하는 견해(정상기 2013:139~140), 익산 입점리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5세기 중엽으로 보는 견해(임영진 2012:24) 등 대체로 5세기 초반에서 중엽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필자 역시 봉덕리 1호분 4호석실의 연대는 분구 내부의 매장시설의 축조순서와 출토된 청자반구호나 소호장식호로 볼 때 빠르면 5세기 2/4분기로 늦어도 3/4분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익산 입점리 86-1호분의 경우 浙江省 溫嶺縣 전실묘 출토품과의 유사성을 들어 5세기 3/4분기로 보는 견해(성정용 2010:86), 온가령 전실묘 출토품과 함께 黃岩縣 秀嶺水庫 37호묘 출토품과의 공통성을 들어 5세기 3/4분기에서 5세기 4/4분기로 보는 견해(土田純子 2014:61), 금동신발의 기본 문양변화를 토대로 5세기 2/4분기에서 3/4분기로 보는 견해(이훈 2010:74) 등이 있다. 필자는 98-1호분과의 입지와 출토유물을 토대로 그 연대는 웅진 천도 이후에 조성된 횡혈식석실묘임을 피력한 바 있다(이문형 2012:109~111 · 2014a:121~123). 입점리 86-1호는 과거 백제 중앙의 주묘제인 횡혈식석실묘와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어 한성시기에 축조된 5세기 무덤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구릉 정상부에 축조된 98-1호(수혈식석곽묘)에 비해 86-1호는 능선 하단부인 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한성시기에 축조되는 횡혈

식석실묘의 입지와는 상반된다. 또한 출토유물(토기)에 있어서도 한성시기로 볼 수 있는 것도 없다. 결국 입점리고분군의 축조세력은 전통적으로 금강 하류를 기반으로 성장한 재지세력으로, 입점리 86-1호는 백제가 웅진으로 남천한 후 상대적으로 금강 하류가 서해로 통하는 관문 혹은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입점리 86-1호 횡혈식석실묘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축조된 고분이다. 이는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와 금동신발의 제작기법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제 청자호 역시 다른 중국제 청자호에 비해 그 크기가 현저히 작은 것으로 미루어 한성시기의 실용기와는 달리 明器로 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신촌리 9호분은 대략 그 시기를 하층은 5세기 중엽, 상층을 5세기 후엽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이정호 2012:166). 그러나 최근 영산강유역의 고분의 병행관계를 언급하면서 금동신발의 조금기법, 환두대도의 문양 등을 토대로 그 하한을 6세기 초로 보는 견해(서현주 2007:180~181), 옹관 형식 분류와 출토유물(개배)의 교차편년을 통해 6세기 초로 보는 견해(오동선 2009:84~88) 등이 있다. 필자 역시 금동관과 금동신발의 조금기법 등으로 볼 때 웅진시기에 해당하는 5세기 4/4~6세기 1/4분기로 판단된다.

2.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에 따른 편년

이같은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금동신발의 제작기법에 따른 문양과의 상관관계를 대입해 보면 백제 금동신발은 웅진천도(475년)를 기점으로 크게 한성시기와 웅진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현재까지 출토된 백제시대 금동신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투조된 '凸'자문(측판)과 능형문(바닥판)의 금동판을 결합하여 제작한 공주 수촌리 Ⅱ-1호와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품을 들 수 있으며, 그 시기는 5세기 1/4분기로 추정된다. 두 점의 금동신발은 투조된 바닥판과의 결구 방법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를 보일 뿐 큰 차이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결구하는데 있어 금동실을 사용한 안동고분 것이 양측판에 끼워 제작한 수촌리 것에 비해 약간 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원주 법천리(4호), 연기 나성리, 고창 봉덕리 1호분(5호)에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동일양식의 신발편이 출토된 바 있다. 한편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

발과 같이 금동실을 이용하여 양측판과 바닥을 결구한 예로는 현재까지 안동고분 외에 원주 법천리 1호 출토된 금동신발편(바닥)이 유일하다.[17]

[표 8] 각 형식별 조금기법 및 문양과의 상관관계

결구 방법	유구명		판금	조금기술			주문양		보조문양		시기
				점선조	축조	어자정	측판	바닥판	측판	바닥판	
Ⅰ형식	고흥 길두리 안동		투조				'凸'자문	능형문			한성 시기
Ⅱ형식	공주 수촌리 Ⅱ-1호		투조				'凸'자문	능형문			
	공주 수촌리 Ⅱ-3호		투조	○	○		거치문 '凸'자문 화염문	거치문 용문 연화문	점열문	점열문	
	공주 수촌리 Ⅱ-4호		투조	○	○		거치문 용문	용문	선문 점열문	점열문 선문	
Ⅲ형식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투조		○	○	화염문 용문 봉황문 인면조신	화염문 용문 도철문 역사상 쌍조문 花文	점선문	점선문	
Ⅳ형식	익산 입점리 86-1호		평판	○			능형문 花文	능형문 花文	점열문	점열문	웅진 시기
	나주 신촌리 9호 을관		평판	○			능형문 원점문	능형문 花文	점열문	점열문	
	무령 왕릉	왕	투조 + 평판	○			花文	花文	점열문	점열문	
		왕비	투조 + 평판	○			인동문 봉황문	인동문 봉황문	점열문		

5세기 2/4분기에 이르면 단순하게 투조된 금동판 문양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문양의 변화는 금동관모에 사용되던 조금기법이 금동신발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공주 수촌리 Ⅱ-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금동신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촌리 Ⅱ-1호분 출토 금동관모에는 투조된 역동적인 용문과 이를 둘러싼 외곽의 화염문에서 축조기법이 확인되며, 문양의 테두리나 구획선에서는 타출의 점선조기법이 확인된다. 특히 축조기법에 의해 새겨진 삼각형의 점들은 현미

17) 다만 세부문양에 있어 능형문이 아닌 용문 혹은 초화문이 표현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금동신발보다 후행할 가능성이 높다.

경으로 관찰해도 매끈하고 촘촘이 연결되어 있어 고난도의 조금기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국립공주박물관 2011:1).[18]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한성시기의 백제는 이미 상당한 금속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전술하였듯이 금동신발은 금동관에 비해 매우 단순하게 제작되었다. 이것은 금동관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함께 출토된 금동관과 금동신발에서도 확인된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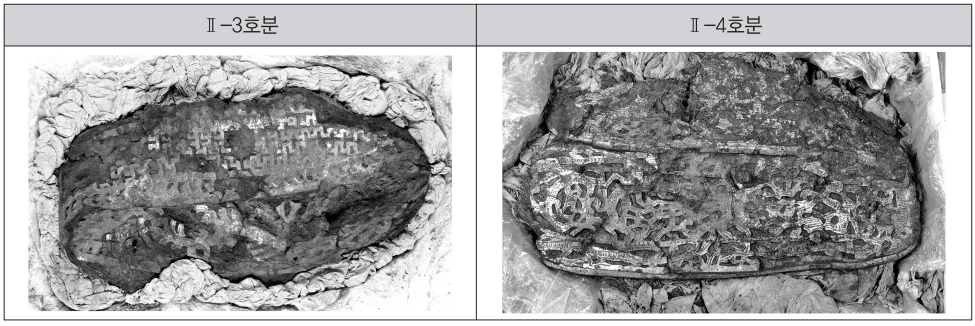
[그림 6] 공주 수촌리 Ⅱ-1호분 출토 금동관 및 금동신발(보고서 인용)

금동관에 사용되던 점선조기법과 축조기법이 5세기 중엽경이 되면 금동신발에 적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수촌리 Ⅱ-3호 출토 금동신발이다. 수촌리 Ⅱ-3호 금동신발은 양측판에 전통적으로 투조된 '凸'자문과 함께 새로운 거치문과 화염문이 시문된다. 또한 바닥판에는 기존의 능형문이 사라지고 용문과 화문이 확인되는데 이들 문양은 이미 금동관에서 사용되던 문양들이다. 조금기법 중 점선조기법은 문양대의 경계선에 刺點文[20]으로, 축조기법은 주문양의 세부 표현이나 거치문과 화염문의 외곽에 주로 사용된다. 이같은 조금기법의 적용은 금동관모과 금동신발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된다.

금동관모에 적용되었던 조금기술은 금동신발의 제작에도 빠르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이미 금동관모에 사용했던 기술과 문양을 금동신발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적응)의 시간 폭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

18) 금동관의 제작기법은 李知炫 외(2011)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 안동고분 금동관에서는 대륜과 전입식에서 축조기법에 확인되고 있다.
20) 점선조기법 가운데 시문한 송곳 자국이 앞면에서 눌러 찍은 경우를 刺點文이라 하며, 뒷면에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찍은 경우를 錐點文이라 한다(이난영 2000:52).

촌리 Ⅱ-4호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측판에 전통적인 '凸'자문의 투조판이 사라지고, 양 측판과 바닥판 모두 용문이 시문된다. 이는 수촌리 Ⅱ-3호 금동신발과 비교해 볼 때 문양의 변화만이 간취될 뿐 조금기법에서의 큰 변화상은 확인되지 않는다.[21] 따라서 시기적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공주 수촌리고분군 출토 금동신발(보고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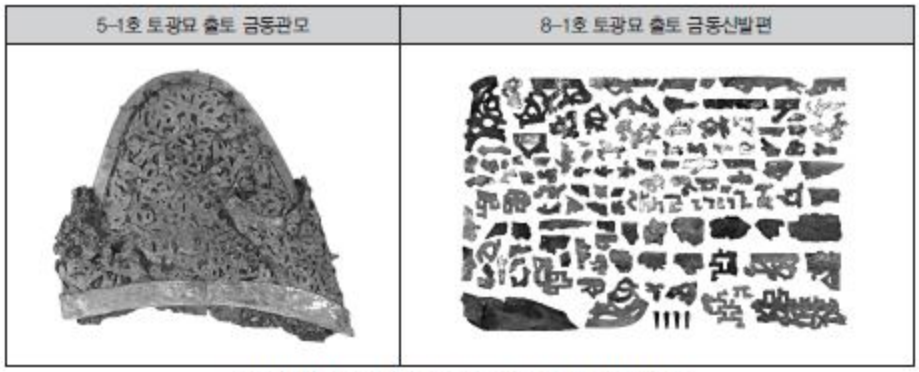
이 시기의 금동신발은 금동관모와 같이 제작기법이나 문양이 변화 발전하는데 이는 금동신발의 위세품적 성격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품에서 제작방법과 문양이 다시 변화를 보이는데 그 시기는 5세기 2/4분기 말에서 늦어도 3/4분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품은 기존의 금동신발이 3매의 금속판을 이용하여 제작한 방식과 달리 추가적으로 상연에 목깃을 부착하여 총 4매의 금속판을 이용하였다(이문형 · 유수화 2015:317~318). 또한 투조된 금동판 역시 기존과는 달리 육각형문을 구획하고 내부에 다양한 상서로운 동물문을 배치하였다(그림 10 · 11). 이러한 변화는 봉덕리 출토품에 앞서 서산 부장리유적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에서 찾을 수 있다(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8). 부장리유적에서는 모두 2개체분의 백제시대 금동신발편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금동신발편 일부에서는 육각형문의 투조 문양이 보이며, 8-1호분의 금동신발편 일부에서는 목깃으로 추정되는 편이 확인된다. 또한 조금기법의 변화도 관찰되는데 주로 주문양의 세부 표현에 사용되던 축조기법이 문양의 외곽선이나 경계선에까지도 확대되며 점선조기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금동신발에서 확인되는 문양의 변화는 5-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금동관모에

21) 다만 점선조기법에 있어 수촌리 Ⅱ-3호 금동신발이 刺點文인 반면, 수촌리 Ⅱ-4호 것은 錐點文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서도 관찰된다. 즉 금동관모 역시 투조된 육각형 구획문 내부에 용봉문을 시문하였는데(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8:217~218),[22] 축조기법으로 문양의 외곽선과 육각문 내부 문양의 세부를 표현하였고, 점선조기법은 문양의 외곽선에 파상문으로 시문된 축조기법의 보조문양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8] 서산 부장리유적 금동관모와 금동신발편(보고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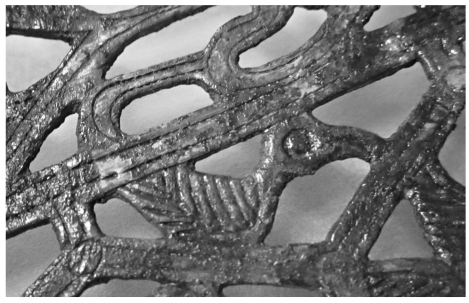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투조문의 변화와 함께 조금기법에서도 점선조기법의 사용이 줄고 축조기법이 확대 적용되는데 이는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금동신발에서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목깃에 1매의 금동판을 추가하여 총 4매로 제작되었다. 이 신발의 목깃의 용도는 투조로 결구한 금동판이 밖으로 벌어지는 탄성을 방지하고 투조판으로 인해 약해진 금속판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다(이문형 · 유수화 2015:318). 최근 나주 정촌에서도 양측판에 육각형문의 투조판과 상연 상부에 목깃을 부착한 금동신발이 출토된 바 있다.[23]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 금동신발을 조금기법과 함께 세부적인 문양을 살펴보자. 먼저 기존 문양의 구획선이나 경계선에 적용되던 점선조기법은 사라지고 축조기법이 이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 시문기법이 매우 섬세하여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에 시문된 축조기법과의 비교에서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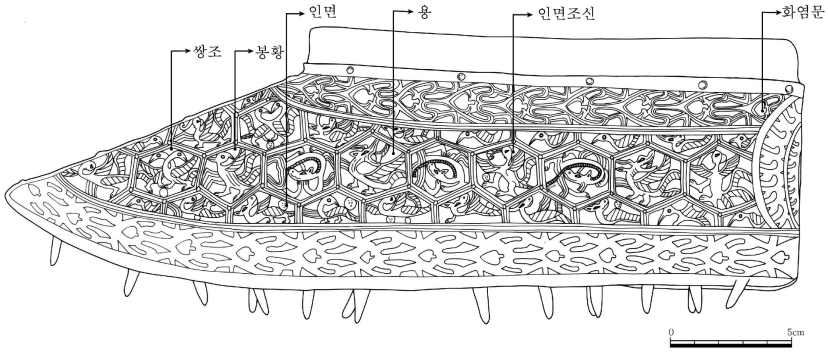
22) 일부 연구자는 일괄적으로 중앙의 용을 중심으로 시문된 문양을 모두 봉황으로 보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국립공주박물관 2011:58).

23) 금동신발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보고서 간행되지 않아 알 수 없다.

공주 수촌리 Ⅱ-4호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그림 9] 금동신발의 축조기법 세부(좌:보고서 인용, 우: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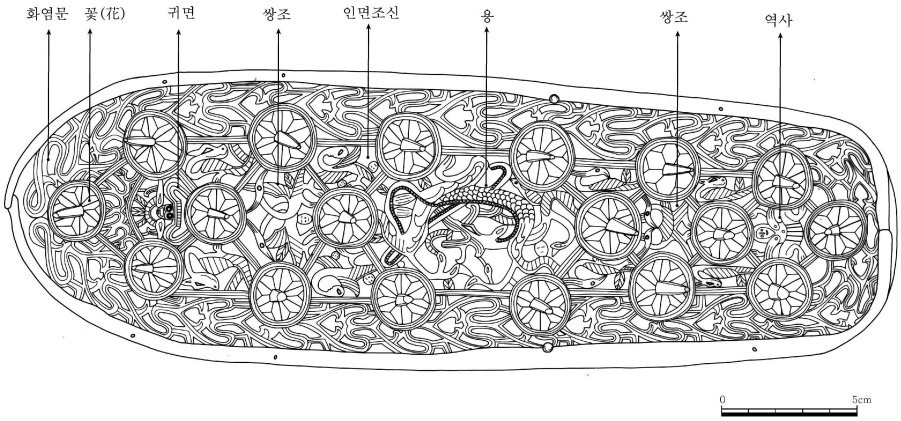
이같은 축조기법은 섬세하면서도 정밀한 작업으로 특수 공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제작집단 역시 별도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權香阿 2000:110)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금동신발 역시 이들 집단 혹은 공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금기법에 있어서는 앞선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어자문기법과 다양한 정(鑿)을 이용한 음각기법[24]이 등장한다. 어자문기법은 비록 초보단계의 일부 동물의 눈(目)에 한정되나, 그 크기가 같은 것으로 미루어 동일한 어자정(끌)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측판과 바닥판에 표현된 용의 비늘에서도 魚鱗文이 확인되는데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입체감이 뛰어나다(그림 10 · 11).



[그림 10]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금동신발(우측:이문형 · 유수화 2015:311 〈도면 4〉 인용)

24) 음각기법은 크게 모조기법의 하나로 이 기법의 무늬는 선조, 침선문, 선각, 음각으로 불리우고 있다(이난영 2000:52). 본 글에서 음각이라 함은 무늬를 파서 시문하는 방법이 아닌 정으로 문양을 입체감 있게 도드라지게(돋을새김) 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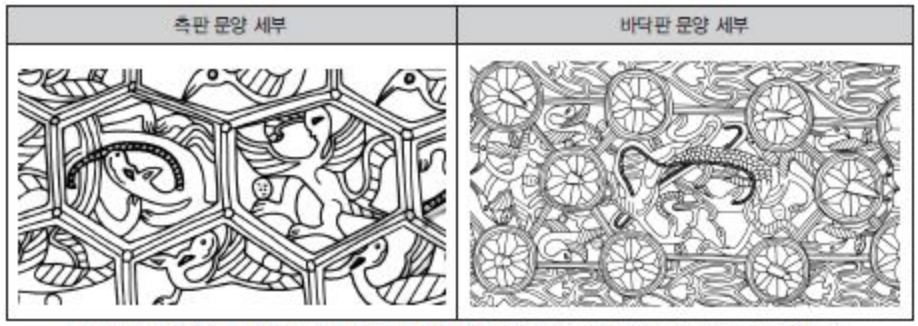
문양은 현재까지 출토된 금동신발 가운데 가장 화려하면서도 섬세하다. 문양대는 투조된 금속판의 측판과 바닥판에 각각 3단과 2단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문양을 시문하였다. 측판의 상단과 하단에는 동일한 하트형의 화염문을 배치하되 상단에 배치한 화염문에 선(축조)을 넣어 입체감을 살렸다. 중단에는 육각형 모양의 틀을 구획하고 그 내부에 봉황-용-인면조-쌍조 등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뒤축부는 원문을 3단으로 배치하고 내부에 곡옥형(컴마형) 화염문을 배치하였는데 마치 이글거리는 태양을 연상시킨다(이문형 · 유수화 2015: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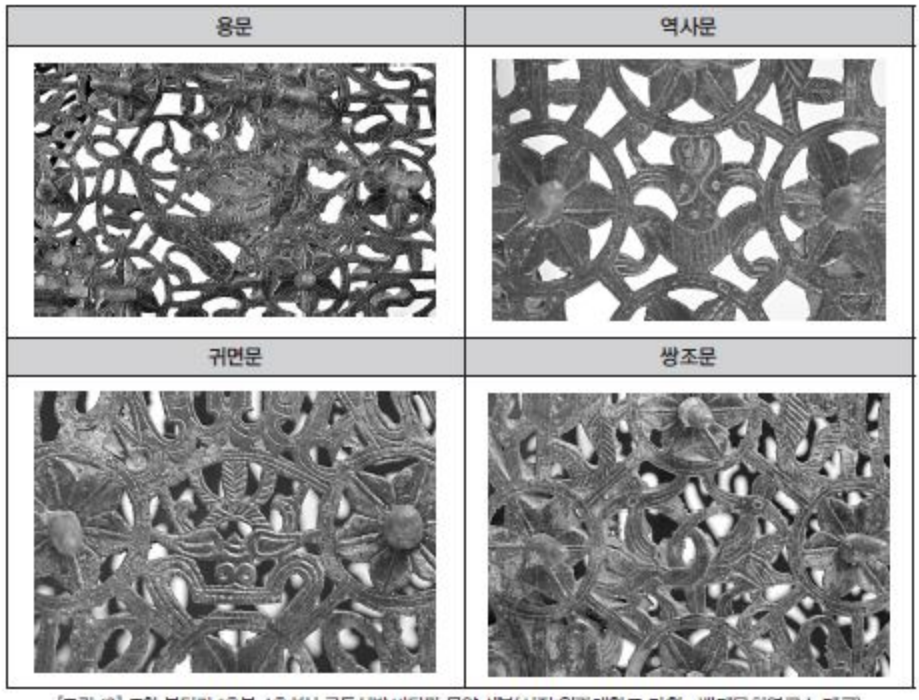
[그림 11]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금동신발(우측) 바닥판 문양(이문형 · 유수화 2015:313 〈도면 6〉 인용)

바닥판 역시 외연에는 화염문을 두고 내부에는 중앙의 용을 중심으로 귀면-쌍조-역사-서수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바닥판의 용문은 곧게 선 뿔에 날카로운 눈, 화염을 뿜는 듯 벌린 입과 역동적인 몸체의 표현과 몸체 내부의 비늘까지도 매우 섬세하면서도 입체감있게 표현하였다. 특히 측판과 바닥판 곳곳에 사람 얼굴의 형상을 원형으로 배치한 점이 이채롭다(이문형 · 유수화 2015:319~321). 또한 바닥판의 18곳에는 6엽의 화문을 배치하고 그 중앙에 스파이크를 부착하여 장식성을 배가 시켰다(그림 11).

전체적인 문양의 배치는 경주의 식리총(朝鮮總督府 1924:221~224, 복천박물관 2010:152~161)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매우 흡사하여 상호 연관성이 주목된다.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지금까지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 가운데 금속기술과 세부 문양에 있어 가장 뛰어나고 화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2]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금동신발 문양 세부(이문형 · 유수화 2015:도면 5와 도면 7 재편집)



[그림 13]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금동신발 바닥판 문양 세부(사진: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제공)

백제 한성시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금동신발의 제작기법과 문양 변화상을 정리해 보면, '凸'자문과 능형문의 투조판을 결구하여 단순하게 제작되던 금동신발은 5세기 2/4분기에 이르면 금동관 제작에 사용되던 조금기술(점선조기법 · 축조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점타조기법은 테두리나 문양대를 구획하는 외곽선의 보조문양으로 시문되는 반면, 주문양의 세부적인 표현에는 축조기법이 사용된다. 투조판에 시문된 문양은 용문 · 화염문 등으로 다양해지는데 대

표적인 금동신발로는 수촌리 Ⅱ-3호와 4호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축조기법은 부장리 금동신발을 거쳐 늦어도 5세기 3/4분기에 이르면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 금동신발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부장리 금동신발에서는 문양의 구획선이나 경계선에도 축조기법이 사용되다가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출토 금동신발은 축조기법이 더욱 정교해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을 이용한 어자문기법과 음각기법이 접목되어 문양은 복잡 다양해지고 사실적이면서도 생동감있게 표현된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백제 한성시기의 금동신발의 편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백제 한성시기 금동신발 편년안

5세기 1/4	5세기 2/4	5세기 3/4	5세기 4/4
수촌리 Ⅱ-1호	수촌리 Ⅱ-3호		
안동고분	수촌리 Ⅱ-4호		
	부장리 6-6호		
	봉덕리 1호분4호		

웅진시기로 들어서면 금동신발에 있어 기법상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된다. 즉 기존과는 달리 한성시기에 사용되던 축조기법은 사라지고 평판에 점선조기법만을 사용하여 문양을 시문하기 시작한다. 또한 제작기법상 측판과 바닥판을 결구하는데 못은 사용되지 않고 금속실을 사용하는 변화도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입점리 86-1호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나주 신촌리 9호(을관) 출토품을 들 수 있다.[25] 이러한 변화는 비단 금동신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반 출토되는 금동관(冠帽)에서도 확인된다. 입점리 86-1호와 신촌리 9호분(을관)에서 출토된 금동관 역시 금동신발과 동일한 점선조기법만을 사용하여 문양을 시문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금속기술의 급작스런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고구려의 침입으로 추정된다. 개로왕 21년(475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인해 백제는 한성이 함락당하는 동시에 개로왕이 처형되고 백제인 8천명이 포로로 잡혀가기에 이른다(『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六[26]). 결국 백제는 고구려의 침입으로 인해 웅진(공주)으로의 천도를 단행하였으며, 이로써 기존 백제 왕실 혹은 중앙 체제(정치 · 경제 · 문화)의 혼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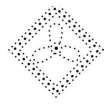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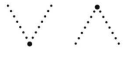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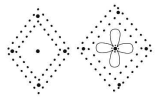
25) 나주 복암리 3호분(국립문화재연구소 2001b) 96호석실에서 출토된 금동신발 역시 이에 해당되며, 최근 남원 두락리 · 유곡리(김승옥 · 변희섭 2014) 32호 주곽에서 출토된 금동신발편 역시 점선조기법의 능형문이 시문되었다.

26) 長壽王 六十三年條 九月 王帥兵三萬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歸.

붕괴는 자명한 일이다. 이로 인하여 금동관 혹은 금동신발 등의 위세품을 제작하던 공방(왕실 · 관영)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기존 한성시기에 축적되고 발전시켜 온 기술의 단절 혹은 쇠퇴를 의미한다. 설령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천도 초기 왕권의 불안으로 인해 금동관 혹은 금동신발과 같은 위세품을 제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웅진천도 이후 이러한 금속공예는 대체로 6세기에 접어들면서 금속기술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한상 2009:167) 그 시기는 무령왕대(501~522년)로 추정된다. 이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각종 금속공예품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웅진시기로 편년되는 금동신발들은 무령왕 시기를 전후한 시점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왕 · 왕비)은 한성시기에 이용되던 투조기법을 사용하기는 하나 세밀하지 못하고 문양의 시문 역시 최고의 지배자인 왕과 왕비의 것이라기에는 정제되고 세련된 느낌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금동신발 내부에 은판(왕)과 금동판(왕비)을 덧대어 투조되지 않은 느낌은 웅진시기에 제작된 평판의 금동신발과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역시 한성시기에 축적되어 온 기술의 단절에서 오는 한계로 여겨진다. 또한 웅진시기에 제작된 금동신발의 경우 문양과 기술적인 세부수법에서 거의 차이점이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으로 보아 그 시기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웅진시기에 제작된 금동신발의 세부 문양 표현에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표 10).

[표 10] 웅진시기 금동신발의 세부 문양 모식도

	상연	하연	전연	후연	주문양
입점리					
신촌리					
무령왕					
무령왕비					

점선조기법 (• 推點文, · 刺點文)

신라 및 가야지역에서는 이러한 축조기법이 6세기경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馬具와 盛矢具 등으로 확대 시문된다(權香阿 2000:138~142). 반면 백제에서는 웅진천도를 계기로 축조기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 백제지역의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금속유물에 있어 축조기법은 한성시기에만 확인되며, 금동관과 관모 그리고 금동신발의 특정유물에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신발에 있어 한성시기와 웅진시기의 제작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발의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성시기의 것은 구별되지 않는 반면, 웅진시기에 제작된 금동신발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제작기법상의 발등과 뒤축의 결구에서 확인되는데 한성시기의 것은 양 측판이 발등부와 뒤축에서 겹치는 양상(위 · 아래)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웅진시기의 것은 오른발의 경우 우측판이 발등부와 뒤축에서 위로 올라와 겹쳐 결구되고 왼발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이다. 웅진시기로 편년되는 입점리 · 신촌리 그리고 무령왕릉(왕 · 왕비)의 금동신발 모두 이와 동일하다. 이 점 역시 한성시기와 웅진시기에 제작된 금동신발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의 제작기법과 문양의 변화를 살펴보고 편년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크게 한성시기와 웅진시기로 구분되어진다.

한성시기의 백제 금동신발은 '凸'자문과 능형문의 투조판으로 결구하여 단순하게 제작되었다. 그러나 5세기 2/4분기에 이르면 금동관 제작에 사용되던 조금기법이 적용되어 문양에 변화가 나타난다. 문양은 금동관과 같은 용문, 화염문 등으로 섬세하면서도 다양하게 변모한다. 또한 이를 표현하는 점타조기법은 테두리나 문양대를 구획하는 외곽선에 시문되는 반면 주문양의 세부적인 표현은 상대적으로 축조기법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축조기법은 늦어도 5세기 3/4분기에 이르면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석실 금동신발에서 절정을 이룬다. 봉덕리 금동신발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매우 정교한 축조기법이 문양대의 구획선으로 외곽에 시문된다. 그리고 세밀한 정을 이용한 어자문기법과 음각기법 등이 복잡 다양한 주문양에 사용되어 사실적이

면서도 입체감있게 표현하였다.

웅진시기의 금동신발은 기법상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된다. 즉 한성시기에 사용된 축조기법은 사라지고 점타조기법만을 사용한 문양이 시문된다. 더불어 제작기법에서도 측판과 바닥판을 결구하는데 있어서 못이 아닌 금속실을 사용하는 변화도 나타난다. 이같은 금속기술의 급작스런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구려의 침입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제작 집단의 와해 혹은 기술의 단절로 추정된다.

웅진천도 이후 백제의 금속공예는 대체로 6세기의 무령왕기에 접어들면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웅진시기로 편년되는 금동신발 역시 무령왕 시기를 전후한 시점에 제작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문양과 금속기법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점에서 추정할 수 있다.

※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유물을 실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국립공주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의 여러 선생님, 그리고 유물 사진을 제공해주신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전남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투고일 2015.8.13 | **심사완료일** 2015.8.25 | **게재확정일** 2015.8.27

참고문헌

국립경주박물관, 2001, 『新羅黃金-신비한 황금의 나라-』.

국립공주박물관, 2001, 『백제 사마왕』.

, 2004, 『국립공주박물관』.

, 2005, 『武寧王陵-출토유물분석보고서(Ⅰ)』.

, 2006, 『武寧王陵-출토유물분석보고서(Ⅱ)』.

, 2010, 『백제의 관(冠)』.

, 2011,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무령왕릉을 格物하다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6, 『羅州 伏岩里 3號墳』.

국립문화재연구소, 1989, 『익산 입점리고분』.

, 2001a, 『羅州 新村里 9號墳』.

, 2001b, 『羅州 伏岩里 3號墳』.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의 숨결 금빛 예술혼-금속공예- 』.

, 2013, 『하늘에 올리는 염원-백제금동대향로-』.

國立中央博物館, 2000, 『法泉里 Ⅰ』.

權香阿, 2000, 「三國時代 金屬遺物의 線彫技法 樣相-蹴彫技法을 중심으로-」, 『文物硏究』第4號,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권혁남 · 서정은 · 이정민 · 함철희, 2010,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 금동식리의 과학적 보존」, 『보존과학연구』31, 국립문화재연구소.

吉井秀夫, 1996, 「금동제 신발의 제작기술」, 『碩晤尹容鎭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김승옥 · 변희섭, 2014, 「1500년전 운봉고원 가야정치체의 실체에 다가서다」, 『한국고고학저널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동아시아 교역의 가교 대성동고분군』, 대성동고분박물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文化財管理局, 1974, 『武寧王陵』.

박순발, 2006, 『백제토기 탐구』, 주류성.

복천박물관, 2010, 『履 -고대인의 신-』.

서현주, 2007, 「榮山江流域 古墳의 編年」, 『한일 삼국 · 고분시대의 연대관(Ⅱ)』, 제2회 국제학술회의 國立釜山大學校博物館 · 日國立歷史民俗博物館.

成正鏞, 2010, 「백제 관련 연대결정자료와 연대관」, 『湖西考古學報』22.

申英浩, 2000, 「武寧王의 金銅製 신발에 대한 一考察」, 『考古學誌』第11輯.

오동선, 2009, 「羅州 新村里 9號墳의 築造過程과 年代 再考-羅州 伏岩里 3號墳과의 비교 검토-」, 『한국고고학보』73, 韓國考古學會.

禹和廷, 2003, 「삼국시대 금동신발 연구」,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임영진, 2012, 「中國 六朝磁器의 百濟 導入背景」, 『한국고고학보』83, 韓國考古學會.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2012, 『高敞 鳳德里 1號墳 -石室 · 甕棺』.

이귀영, 2010, 「백제 금속공예 제작기법의 전개양상」, 『百濟學報』第2輯.

이난영, 1991, 「魚子文技法」, 『震檀學報』71 · 72.

, 2000, 『한국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문형, 2012,「全北地方 百濟 橫穴式石室墳의 受容과 展開」,『백제고분의 새로운 인식』, 호서 · 호남 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호서고고학회 · 호남고고학회.
, 2014a,「익산지역 백제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전개」,『익산, 마한 · 백제연구의 새로운 중심』, 국립전주박물관 ·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편, 서경문화사.
, 2014b,「고창 봉덕리1호분의 대외교류와 연대관」,『고분을 통해 본 호남지역의 대외교류와 연대관』, 제1회 고분 국제학술대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이문형 · 유수화, 2015,「고창 봉덕리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방법과 문양-4호석실 출토품을 중심으로」,『馬韓 · 百濟文化』第25輯, 圓光大學校 馬韓 · 百濟文化硏究所.
李丙燾, 1997,『三國史記』, 乙酉文化社.
이송란, 2012,「백제 한성시기 금속공예의 투각 연속육각문의 수용과 전개」,『百濟文化』第47輯,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硏究所.
이정호, 2012,「영산강유역의 백제고분-영산강유역 고분변천에 대하여-」,『백제고분의 새로운 인식』, 호서 · 호남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호서고고학회 · 호남고고학회.
李知炫 · 崔基殷 · 金成坤, 2011,「百濟 金銅帽冠 製作技法 硏究 -結構方法 및 蹴彫技法을 중심으로-」,『百濟의 冠-논고편-』.
李勳, 2010,「金銅冠을 통해 본 4-5世紀 百濟의 地方統治」, 公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이한상, 2009,『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 2010,「삼국시대의 금동식리(金銅飾履) 문화」,『履 -고대인의 신-』, 복천박물관.
, 2011,「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금동관모와 금동식리에 대한 검토」,『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역사적 성격』,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특별전 기념학술대회자료집, 전남대학교박물관.
이현상, 2011,「한성시기 백제 금동식리의 제작기술과 그 특징-공주 수촌리고분군 출토품을 중심으로-」,『역사와 담론』제59집, 호서사학회.
장용준, 2004,「삼국시대 용문양의 수용과 발전」,『韓國考古學報』第53輯, 韓國考古學會.
전남대학교박물관, 2006,「고흥 안동고분 시굴조사」, 회의자료.
, 2007,「고흥 길두리 안동고분」,『2006년 한국고고학저널』.
정상기, 2013,「高敞 鳳德里 出土 靑磁盤口壺의 製作時期 檢討:中國 南京市 出土品과 比較 檢討를 통해」,『東垣學術論文集』第14號.
朝鮮總督府, 1924,「慶州 金鈴塚 · 飾履塚 發掘調査報告」,『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周炅美, 1998,「三國時代 打出技法硏究」,『科技考古硏究』第3號, 아주대학교박물관.
中野政樹, 1983,「日本の魚子文-受容と展開」,『MUSEUM』No.393, 東京國立博物館.
진소영, 2008,「금동신발과 백제의 지방통치」,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忠北大學校博物館, 1990,『淸州 新鳳洞古墳群』.
, 1995,『淸州 新鳳洞古墳群』.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7,『公州 水村里遺蹟』.
, 2008,『瑞山 富長里遺蹟』.
, 2013,『公州 水村里古墳群 Ⅰ』.
土田純子, 2014,『百濟土器 東아시아 交叉編年 硏究』, 서경문화사.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5,「燕岐 羅城里遺蹟」.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4,「화성 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H지점) 문화유적 발굴조사-제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
한성백제박물관, 2012,『백제의 멥시-옷과 꾸미개-』.
홍정실, 1998,『한국의 연장』, 길금공예연구소.
, 2008,「백제 금속공예품 제작기술과 연장」,『백제의 숨결 금빛 예술혼-금속공예-』, 국립부여박물관.

Chronology of Baekje's Gilt-bronze Shoes Compiled from the Perspective of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Patterns

Lee, Moon-Hyoung

(Mahan-Baekje Cultural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chronology of gilt-bronze shoes of Baekje Kingdom by examining the materials used in them and the changes in their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patterns.

Metal carving is used to decorate the otherwise monotonous surface of metal. It was confirmed that the line carving technique (dotted line and triangle carving) and ring-matting technique were used for making gilt-bronze shoes in Baekje Kingdom period. Development of the metal carving technique seemed to have been connected with the pattern of gilt-bronze shoes, gradually changing from using a simple openwork carving plate to a complicated one with hexagonal design. A continuity in a certain pattern of changes in carved design was also observ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patterns, Baekje's gilt-bronze shoes can be classified into those of Hansung and Ungjin periods.

Gilt-bronze shoes during the Hansung period of Baekje were made in a simple way using openwork carving panels of convex (凸)- or diamond-shaped design. The 2nd quarter of the 5th century, however, saw changes into dragon or flame design, thanks to grafting of the metal carving technique. This technique was further developed and shown to have culminated in the gilt-bronze shoes unearthed from the stone chamber No. 4 of the tomb No. 1 in Bongdeok-ri, Gochang, presumed to have been constructed during the 3rd quarter of the 5th century. Inside of the gilt-bronze shoes found in the Bongdeok-ri tomb was partitioned with hexagonally carved panels, and shapes of various auspicious animals including dragons, the Chinese phoenix or birds with human faces were carved with a new ring-matting

technique in an extremely realistic and three-dimensional way.

In the Ungjing period, drastic change was observed in the metal carving technique used in making the gilt-bronze shoes. That is, out of the line carving techniques used in Hansung period only dotted-line carving technique was used to make patterns, and patterns themselves became simplified. Similar changes were found also in the gilt-bronze crown found together with the shoes. Such drastic change in metal carving technology is believed to be the direct result of the fall of Hansung by Goguryeo Kingdom (475), which may have forced the collapse of the technician group and the technology itself as well. The metal crafts of Baekje Kingdom would see a revival approximately in the 6th century under the reign of King Muryeong.

Key words : Baekje Kingdom, gilt-bronze shoes, metal carving technique, line carving technique (dotted line and triangle carving), ring-matting technique, pattern, Hansung period, Ungjin period